



2021년에도 ESG가 대세

1. 3분기에도 글로벌 SRI 펀드 투자 규모 확대

-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과 회복
-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책임투자 부각
-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회책임투자에는 긍정적

2. 그린본드 투자 확대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위하여 ESG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본드 등 ESG채권 발행 올해 들어 크게 증가
- ESG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ESG 채권 발행목적에 맞는 분야가 활성화되는 것도 ESG 채권 발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3.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

- UN은 CalPERS, 알리안츠, AXA 등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을 모아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한 활동에 들어감
- 기관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행동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환경과 관련된 기업활동 변화 예상



주식시장 투자전략

1. 3분기에도 글로벌 SRI 펀드 투자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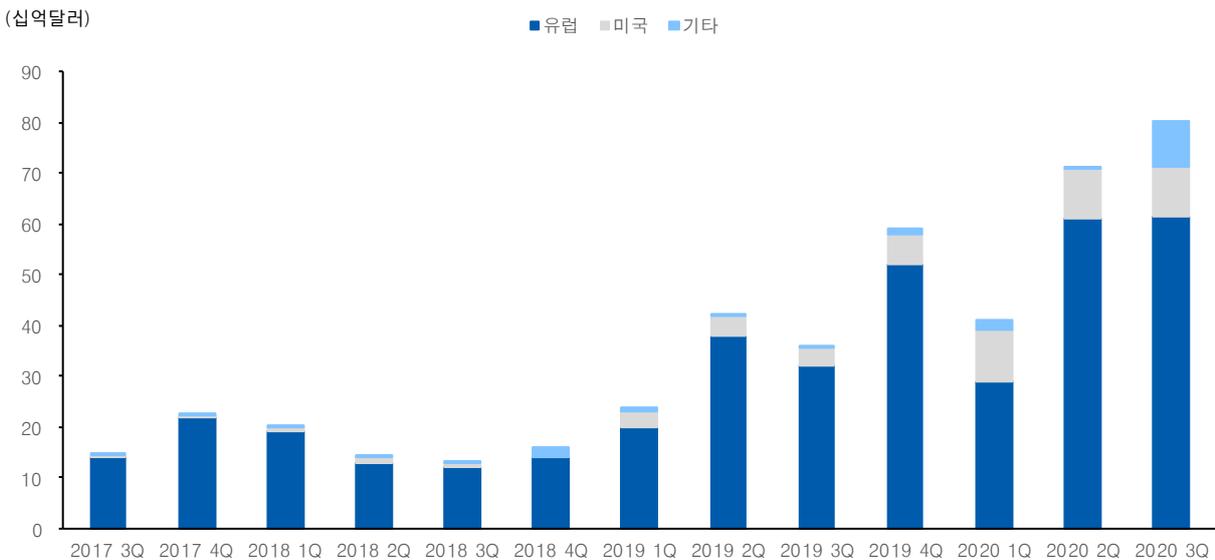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과 회복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요소를 펀드 운용에 적용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로 투자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투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적 연기금부터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사회책임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정책이 환경 정책인 것도 사회책임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예상되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 비중이 높은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회책임투자에는 긍정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석탄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기관투자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공통된 현상이다.

[차트3] 글로벌 SRI 펀드, 3분기에도 자금 유입 증가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그린본드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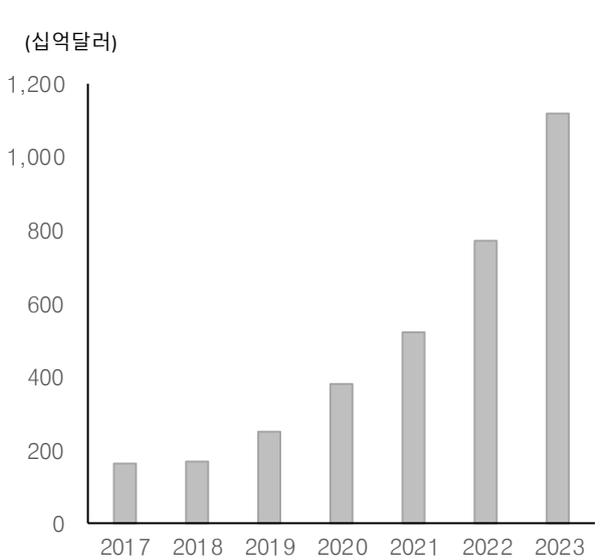
그린 본드는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ESG 채권은 그린본드, 사회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린 본드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위하여 ESG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작년 글로벌 채권 시장 규모는 4,660억달러(약 508조원) 규모이며, 2021년에는 5,500억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본드 등 ESG채권 발행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주요 카드사의 ESG 채권 발행 규모는 1조 7,100억원으로 작년 4,4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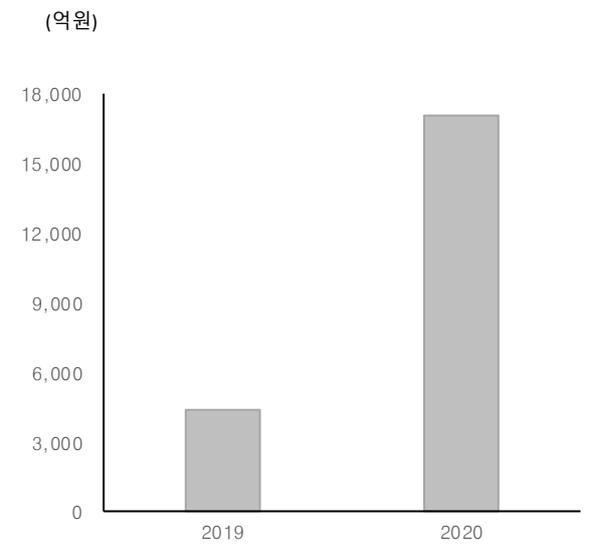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ESG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ESG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ESG 채권 발행 목적에 맞는 분야가 활성화되는 것도 ESG 채권 발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2] 전세계 그린본드 시장은 본격적 성장 단계 진입



자료: DG Ban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우리나라 카드사의 ESG 채권 발행은 2020년에 크게 증가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UN은 CalPERS, 알리안츠, AXA 등 전세계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을 모아서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은 내년 1분기까지 5년 안에 탄소 배출을 16~29% 줄이기 위한 요구를 할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 연합에 가입하고 목표를 설정한 기관은 가입 이후 5년 후에는 탄소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 대상 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행동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환경과 관련된 기업활동 변화가 예상된다.

|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 연합에 가입한 기관투자자 (단위: 억원) | |
|---|---|
| 기관 | 기관 |
| Allianz(독일 금융그룹) | Fonds de Réserve pour les Retraites (프랑스 연기금) |
| Caisse des Dépôts(프랑스 금융기관) | Generali(이탈리아 보험사) |
| La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DPQ)(캐나다 연기금) | Church of England(잉글랜드 성공회) |
| Folksam Group(스웨덴 보험사) | Munich Re(독일 재보험사) |
| Pension Denmark(덴마크 연기금) | ERAFP((프랑스 연기금) |
| SwissRe(스위스 재보험사) | KENFO(독일 기금) |
| Alecta Pensionsförsäkring, ömsesidigt(스웨덴 퇴직연금) | Wespath(미국 재단) |
| AMF(스웨덴 연기금) | PFA pension(독일 퇴직연금) |
| CalPERS(미국 연기금) | SCOR(프랑스 재보험사) |
| Nordea Life and Pension(북유럽 연기금) | MP Pension(덴마크 연기금) |
| Storebrand(노르웨이 연기금) | Danica Pension(덴마크 연기금) |
| Zurich Insurance(스위스 보험사) | United Nations(국제기구) |
| Aviva(영국 보험사) | David Rockefeller Fund(미국 재단) |
| AXA(프랑스 보험사) | Cbus(호주 퇴직연금) |
| CNP Assurances(프랑스 보험사) | |

자료: U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